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8년 12월호

리아호나

성탄절에 받은 가장 감미로운 선물, 14쪽

한 선교사의 마지막 메시지, 18쪽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라, 20쪽

구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 32쪽

1월호부터

어린이란이
별도로
인쇄됨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서 열리는 성탄 축제에서.

성탄 퀼트,
주디 웨인 지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1~12)

여기에
교회가
있다

볼리비아

라파스

눈 덮인 일리마니산이 아름답게 둘러싸고 있는 높은 고도의 붉은 벽돌의 도시 라파스는 정부 청사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 볼리비아 행정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1964년 11월, 안데스 선교부에서 봉사할 선교사들이 볼리비아에 도착했고, 열아홉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첫 번째 개종자가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오늘날 볼리비아에는 203,00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과 255개의 단위 조직, 그리고 5곳의 선교부가 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233km 떨어진 코차밤바에 있는데, 라파스에서는 차로 7시간 걸리는 거리이다.

교회는 볼리비아에서 휠체어와 신생아 의료 장비 기부, 헌혈 운동 참여, 농업 및 가정 원예 사업 지원, 마을 개발 사업, 유사시 구호 활동 조직 등의 인도주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라파스 수도권에는 40곳의 후기 성도 집회소가 있다.
-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스페인어지만, 많은 사람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과라니어를 할 줄 안다.
- 1967년에 첫 번째 볼리비아 출신 전임 선교사가 부름받았다.
- 2014년 12월에 볼리비아 교회는 50주년을 맞았다. 라파스 회원들은 2015년 1월에 지역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의 교과 과정 개발팀이 회원들에게 2019년도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의 시범 운영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식이 통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초반에 있었던 이런 우려는 “우리 경전 공부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라든가 “효과가 있어요!”라는 확신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경험은 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과 과정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공부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안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나온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에 담긴 원리들을 살펴봅니다. 이는 2013년에 도입된 개정된 청소년 교과 과정, 2016년의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그리고 2018년에 시작된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에 뒤이어 나온 것입니다.

교과 과정 개발 작업에 지침을 주셨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통찰이 20쪽부터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심오하고도 영원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복음 학습과 복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이 가정 중심적인, 교회가 지원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의 개발을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교과 과정이 개인의 영적 성장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권유함으로써 복음 생활에 대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취하려는 교회의 움직임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보고 경탄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적 성장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큰 빛과 진리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악한 자를 저버릴 우리의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교리와 성약 93:29~40 참조),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이 세상에는 선량함이 찾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이클 매글비
교과 과정 개발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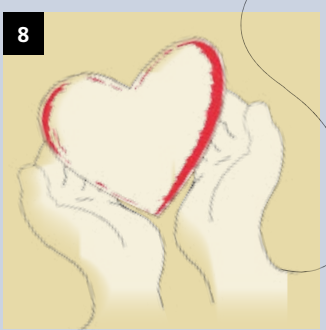
특집 기사

8 **성역의 원리: 여러분의 관심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보자.

14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20 **우리 삶이 가슴 설레는 성장의 여정이 되기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는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성한 가능성을 향해 진보할 수 있다.

32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구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스티븐 피 샘크
구주에 관한 고대의 상징들을 통해 우리는 구주의 역할과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측면을 배울 수 있다.



청년 성인

46 **하나가 되어: 기념해야 할 이유**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
1978년에 받은 신권에 관한 계시가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한 가지는 편협한 태도를 버리라는 성스러운 요청이다.

51 **하나가 되어: 다리를 놓으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성약의 길에서 문화, 언어, 성별, 인종, 국적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52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풀다**
에릭 비 머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각 개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다.

56 **성탄절의 영을 느끼는 일곱 가지 방법**
샬럿 라카발
성탄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선물해 보자.

60 **성탄절 선물로 영의 은사도 함께**
데이비드 딕슨
기꺼이 구하려고만 한다면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다.

62 **질의응답**
"저는 구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64 **포스터: 가능하게 하는 은사**

65 **선지자의 권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러셀 엠 넬슨 회장

표지
거룩한 밤, 마이클 맘.

교회 본부 기사

5 **첫 번째 성탄 여정**
크리스티나 크로스랜드

6 **신앙의 초상:**
블랑카 솔리스—파라과이 아순시온

12 **내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어디로 갔나요?**
진 비 빙엄 자매

18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자**
루이스 오마르 카르도소

30 **연단에서**
결정과 기적: 저는 이제 압니다
이리나 브이 크랏저

36 **단상: 빨간 전구**
로리 리스

37 **교회에서 봉사하며:**
봉사를 통한 성장
포 니엘(펠리페) 처우, 페트라 처우

38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해함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청년 성인

42 **중대한 결정 중에 들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엠 조셉 브로
영적인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66 **칼의 성탄 선물**
줄리앤 테니 도먼
성탄절 아침 일찍, 칼은 가족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다.

68 **케이티와 퀸시**
에번 밸런타인 및 머리사 위디슨
퀸시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70 **경건은 사랑이지요**
루아이포우 더블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긴장을 덜 수 있었어요.

71 **진흙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이웃들의 집이 진흙으로 다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72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쿠엔틴 엘 쿡 장로

73 **우리들 이야기**

74 **빛을 비추라:**
세상을 밝히는 형제들
가나에 사는 이 형제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빛을 비춘다.

76 **경전 이야기: 요나와 고래**
킴 웹 리드

79 **색칠하기**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_____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liahona@ldschurch.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온라인 전용 기사

사진: NEONBRAND/UNSPLASH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리아 바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오빠의 죽음 이후에 더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이유

히메나 카르도소 코르발란

히메나가 선교 사업 중이던 오빠를 잃은 후 어떻게 평안을 찾았는지 이야기한다. 히메나의 아버지의 기사는 이번 호 18쪽에 있다.

2018년 12월호, 제55권, 제12호
리아호나 1479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밸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랜디 디 핑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홈즈,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지 로빈스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올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란시스카 올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젠슨,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샐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셀루,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워디슨
편집 인턴: 알렉스 휴지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머리사 엠 스미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뎃,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3호, 제55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샬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킴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8 Vol. 42 No. 10.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첫 번째 성탄 여정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떠났던 그 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 그들의 신앙과 희생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 누가복음 1:26~27, 30~31

마리아는 주민이 사오백 명에 지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이었다.1 세상에서 보기에 그녀는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2. 누가복음 2:4~5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행은 최소한 나흘이나 닷새가 걸렸을 테지만2 경전 어디에도 그들이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지날 때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언급은 없다. 심지어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을 앞둔 몸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과 함께 여정을 감당했다.(미가 5:2 참조)

3. 누가복음 2: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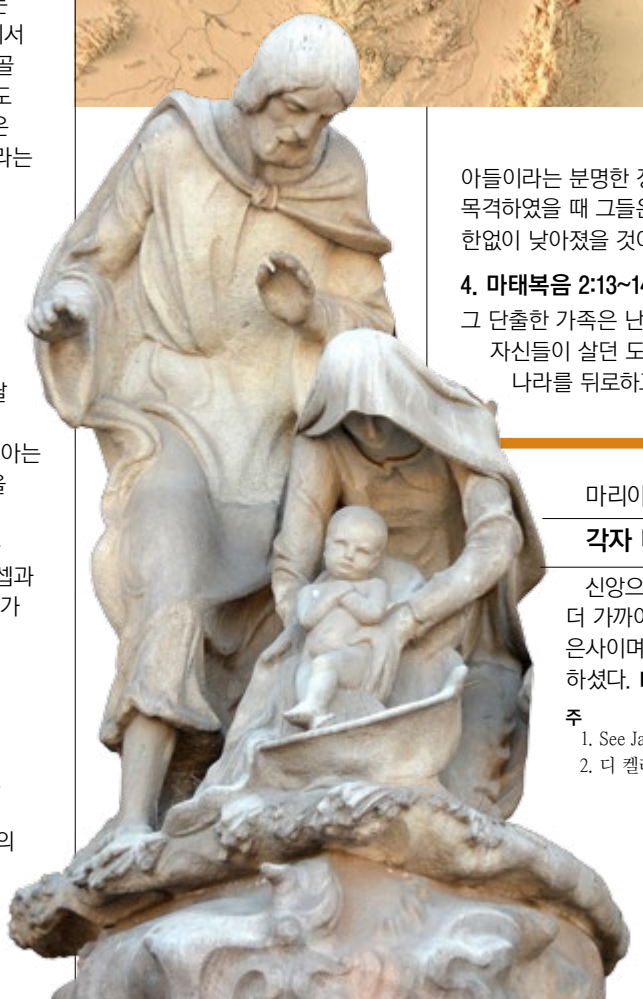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만군의 왕이신 아기를 누일 집도, 요람도 없었다.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징조를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을 것이다.

4. 마태복음 2:13~14

그 단출한 가족은 난데없이 자신들이 살던 도시와 나라를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아기 그리스도는 채 두 살이 되기도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마태복음 2:16 참조)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구주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애굽을 향한 머나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5. 마태복음 2:19~23

낯선 땅에서 얼마간 지낸 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의 여행 중 가장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으므로 그 먼 거리도 조금은 가깝게 여겨졌을 것이다.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분을 길렀다.(마태복음 2:23)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 나름의 여행을 하고 있다.** 갈 길이 멀고 힘들지만,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영생으로 더 가까이 인도된다. 이 영생은 사랑하는 구주께서 마련하신 은사이며, 그분은 자신의 여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다. ■

주

1. See James E. Strange, "Nazareth," *Anchor Bible Dictionary*.
2. 디 켈리 옥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성도의 벗*, 1993년 12월호, 41쪽.

지도 및 동상 사진: GETTY IMAGES; 수태고지 그림의 일부: 칼 하인리히 블로흐; 도파: 로즈 대통 담

블랑카는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병으로 몸져눕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그들을 돌보아야만 했다. 블랑카는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힘을 얻었다.

사진 촬영: 코디 벨

블랑카 솔리스

파라과이 아순시온

나는 주님께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기를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나는 항상 그분께 기도한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일을 겪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그동안 나와 줄곧 함께 걸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께서는 내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큰 힘을 주신다.

나는 절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하고 묻지 않는다. 그러는 데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주님은 나를 지탱해 주셨고, 거기에서 나는 힘을 얻었다.

추가 정보

간병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가? **lds.org/go/12186**를 참조한다.

나이가 많은 가족을 보살피는 방법에 관해 **lds.org/go/12187**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lds.org/go/18에서 다른 신앙의 초상 기사들을 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여러분의 관심을 전하십시오

특히 성탄절 무렵에는 우리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다. 직접 말로 하거나, 문자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무언가를 주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빵이나 쿠키를 굽고, 노래를 하고, 안아 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정원 일이나 청소를 도울 수도 있다. 그저 실행에 옮겨 보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일은 성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역은 사랑을 동기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 사랑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잃어버린' 자매들과 형제들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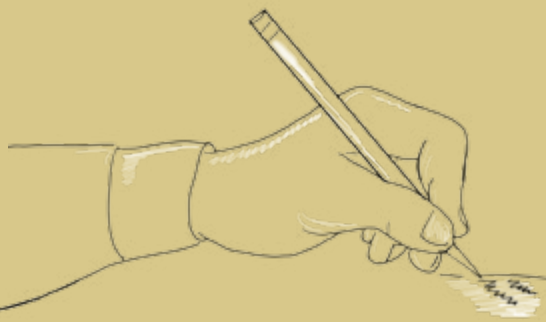
우리의 관심을 전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맺는 데에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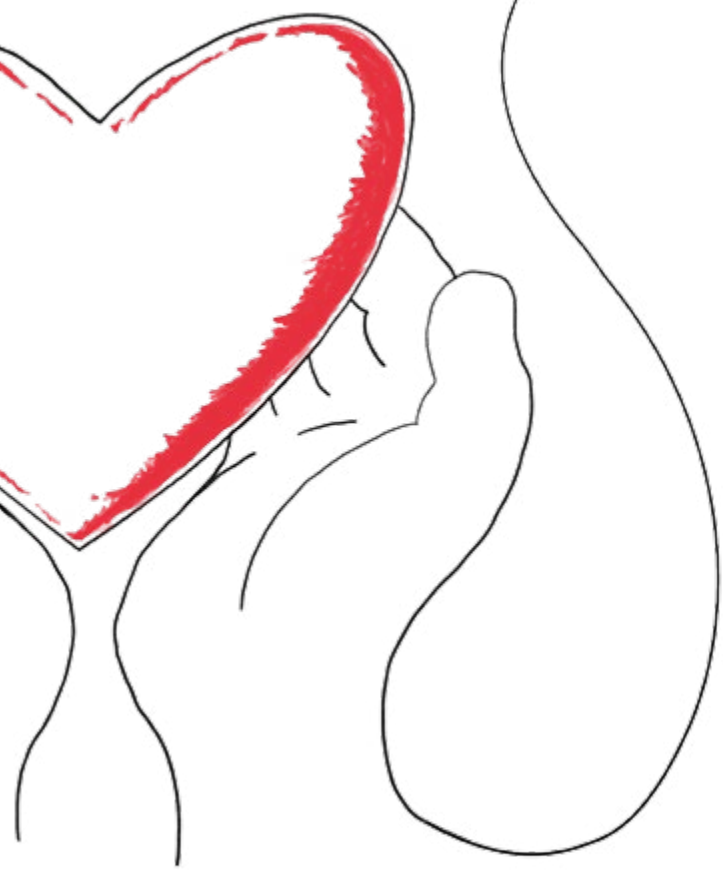
"성역의 원리" 기사는 방문 시에 메시지로 나누도록 마련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관심과 동정심에 더하여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말로 전한다

간혹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로 전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그들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진심을 담아 하는 칭찬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에베소서 4:29 참조)

- 그 사람의 특정한 강점을 얼마나 높이 사는지 알려 줄 기회를 찾는다.
- 그 사람의 집에 들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카드를 보냄으로써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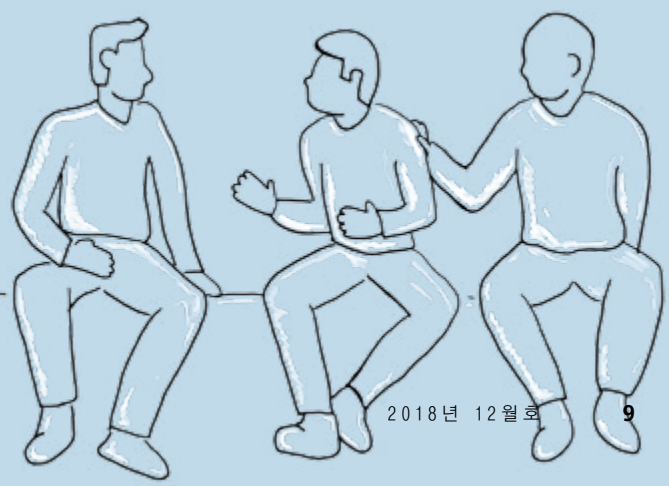




방문한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방법이다. 집에서든, 교회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모사이야서 4:26; 교리와 성약 20:47 참조)

-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방문 일정을 잡는다. 시간을 들여 그들의 상황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고, 그것을 이해한다.
- 거리적 제약이나 문화 규범, 또는 기타 다른 상황 때문에 집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함께 시간을 잡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목적을 둔 봉사를 한다

개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우리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함으로써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봉사는 시간과 신중한 노력이라는 귀한 은사가 결합된 것이다. 빙엄 자매는 말했다.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2]

- 개인이나 그들의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 부모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봐 주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삶을 버거워할 때,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창문 청소를 해 주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정원일을 도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줄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성역의 원리, 기사,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를 참조한다.

무언가를 함께 한다

깊은 대화를 통해서 친근감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친해지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라고 권고하셨다.(교리와 성약 20:53)

- 산책을 가거나, 보드 게임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정기적으로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지역 사회나 교회 프로젝트에서 함께 봉사한다.

선물을 준다

함께 교류할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할 때도 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여러 문화권에서 관심과 공감의 표시이다. 아주 가끔씩 간단한 선물을 전하는 것도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다.(잠언 21:14 참조)

-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다준다.
-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용문이나 경전 구절, 기타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의 봉사

우리가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영감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들 개개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할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의 킴벌리 세이볼트라는 여성은 자신이 영감을 구하고, 사랑을 보이기 위해 선물을 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아침에 일어나 호박빵을 여덟 덩이쯤 만듭니다. 제 비법 재료는 빵을 굽는 동안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끈따끈한 호박빵을 가지고 이웃들의 가정과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저는 길가에서 블랙베리를 팔던 한 가족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블랙베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판대에 있던 어리고 여윈 소년은 제가 물건을 사려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블랙베리를 조금 샀지만 그 소년에게 줄 선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호박빵 두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빵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드디어 오늘 먹을 음식이 생겼어요.' 저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호소했다.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역을 베풀 우리 청남 청녀가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필 것을 더 깊이 다짐하[기를] … 소망합니다. …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 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방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도우며, 포도원의 주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3]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신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요한복음 11:35~36)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그러고 나서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불러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었다.(제3니파이 17:7~9 참조)

구주는 다른 이들을 보살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셨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여러분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

주

1.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풂",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5쪽.
2.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풂", 104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3쪽.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내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어디로 갔나요?

성역의 융통성은 더 많은 보살핌을 베풀기 위한 것이지 느긋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 친구는 당황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내 방문 교사들은 어디로 간 거야?" 남편과 사별한 순간부터 그 친구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고, 신경 써 주었던 방문 교사들은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성역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방식에 적응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 자매 성역자들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성역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나, 우리의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훌륭한 방법이며, 여전히 가정 방문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어떻게*보다는 *왜*를 우선시한다

일부 회원들이 이러한 변화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이 성역으로 바뀐 배경에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지 그 방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를 돌보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이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개종하고, 자신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더 계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융통성이 생긴 성역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가 노력을 좀 느긋하게 해도 된다는 여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때 영의 인도를 받을 기회를 더욱 늘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구를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에 우선적으로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함께 배운다

성역 프로그램이 실시된 초반에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은 이미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성(과 남성)이 성역을 베풀고 받으며 그들의 관계와 개인적인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다녀왔는데, 그곳의 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스테이크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설명만 좀 더 덧붙인다면, 이 방법들은 아주 훌륭하고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

이 표는 일부 회원들이 이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자 하는 성역을 베푼다는 것의 의미를 비교한 것이다.

이전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성역
의무로 햄함	사랑으로 행함
보석 상자*	진주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과정	결과
완료 후 할 일 목록에서 제외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함
과제 중심	사람 중심
한 달에 한 번 방문	간단하고 융통성 있는 접촉
정해진 메시지 전달	영에 따라 복음을 나눔
무엇을 해야 방문으로 간주되는가?	영적 복지를 책임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임무 지명을 받음	형제 자매들을 믿고 맡음
완수 여부 보고	마음을 변화시킴

* 한 보석 상인에게 귀한 진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진주보다 그것이 담겨 있던 아름다운 상자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보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비유.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에서 성역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정책과 절차라는 “상자”보다 의미 있는 성역이라는 “진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성역 접견을 잘하는 방법

본 기사의 온라인 버전에서, 빙엄 자매는 도움이 되는 성역 접견을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나눈다. lds.org/go/121813에서 확인한다.

계속해 나간다

우리는 모두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1]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두렵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롭고도 더 거룩한”이란 말이 “흠잡을 데 없고 달성할 수 없는”이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역의 목적과 방식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분이나,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분 모두 ministering.lds.org에 있는 자료들을 시청하고, 읽고, 매달 *리아호나*에 실리는 성역의 원리 기사들을 연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이번 호는 6쪽 참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은 구주의 사업에 발맞추어 성역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베푸시는 사랑과 보살핌,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의 성역은 진정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2] ■

주

1.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2. 에머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4쪽.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

평안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음악과 캐럴, 성탄절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 웃음 짓는 얼굴들, 기쁨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보다 멋진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성탄절은 우리를 가족으로서, 친구들로서, 공동체로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의 만찬을 고대합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에버니저 스크루지의 조카는 이 성스러운 시기가 지닌 마법과 같은 힘을 이렇게 포착해 냅니다.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얼마나 좋은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절과 용서와 자선을 베풀고 즐거워하는 시기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 년을 통틀어 그나마 그때가 유일하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인심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때인걸요. … 그러니까 … 성탄절이 왔다고 누가 제 주머니에 금화나 은화 한 닢이라도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성탄절은 제겐 복된 시간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어요. 부디 성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1]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이제는 조부모로서 제 자녀들과, 또 이제는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이 성탄절의 마법 같은 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어린이들이 기뻐하며 천진난만하게 이 특별한 명절을 고대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마다 행복했던 지난 성탄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디킨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라서 좋을 때가 있는데, 특히나 성탄절에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성탄절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시자 본인도 한때는 어린아이셨기 때문이에요."[2]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은 오렌지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년 성탄절 무렵이면 하루 저녁 날을 잡아서 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대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다과를 즐기며 보내셨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전통이었으며, 노래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다른 어린이들은 최대한 자리를 지키며 노래를 부르다가 오렌지 밭으로 살짝 빠져나가 뛰어 놀곤 했습니다.

제 아내 캐시와 저는 비교적 해안에 가까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곳의 성탄절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야자나무가 특징입니다. 해마다 우리

예수 탄생, 동판에 갈색 인쇄, 제이 카크 리처즈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성탄절의 영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에 뿌리를 둡니다.

아이들은 항구에서 성탄절 보트 행렬을 구경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수백 척의 아름다운 요트들이 형형색색 빛을 반짝이며 항구 주변을 도는 광경을 저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지역의 한 제작사에서 상연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연극에 데려가는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매정하고 폐쇄적이던 스크루지가 성탄절의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이웃으로 탈바꿈되는 기적을 지켜보며, 우리도 우리 내면의 스크루지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아울러 만인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구주를 더욱 따르고자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성탄절의 영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에 뿌리를 둡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 즉 이천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하나님 아들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1, 3~14)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홀연히 나타난 하늘의 사자가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목자들은 실로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려 했던 소식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기적을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인류의 구속이 문자 그대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을 전한 사자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필멸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천사가 약속한 큰 기쁨을 도저히 맛볼 수 없을 듯해 보이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연약함과 고달픔, 곧 질병, 실패, 시련, 실망, 그리고 종국에 올 죽음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안전한 삶을 축복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위해 육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삶이 힘겹기는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이천 년 전에 망을 보던 양치기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명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첫번째 성탄절 날 밤 목자들이 느낀 불안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더 크게 연관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한 그 말은 구주께서 계시므로 두려움이 절대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세속적인 문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구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성탄절에 주어진 가장 감미로운 선물은 언제까지나 구주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그분의 완전한 평안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평안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분을 따른다면, 지속적인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구주에 대한 희망

구주께서 이천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그것도 아주 크나큰 희망이 있습니다. 구속과 해방, 승리와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악인은 멸망 당하리."[3]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발표에 앞서 하늘의 서곡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합창이 홀연히 들려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호의를 담은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부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

2015년 12월 6일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에서 발췌함.

주

1. Charles Dickens, *A Christmas Carol* (1858), 5—6.
2. *A Christmas Carol*, 67. 67.
3. "성탄의 종이 울린다", *찬송가*, 137장.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자

루이스 오마르 카르도소

아들의 선교부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세르지오가 선교 사업을 나간 지 일 년쯤 되었을 때였다. 세르지오는 우리 집의 외아들이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러 나간 첫 번째 자녀였다. 아내 릴리아나와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 아이가 두 여동생에게 보이는 모범을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우리는 세르지오가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을 알았다. 그 아이는 타고난 지도자였으며, 행복하고 진실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세르지오는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되었다. 누가 후기 성도라고 놀려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좀처럼 상처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세르지오가 페루 치클라요 선교부에 부름받았을 때 정말 기뻤다. 아들은 2013년 11월 20일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아들은 선교 사업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편지 쓰는 일이 쉬웠다. 하지만 여러 달이 흐르면서 나는 아이의 편지 내용을 생각하고, 그 아이의 영적 성장에 부응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우리는 세르지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선교 임지가 세상에서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선교부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2014년 10월 7일이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선교부 회장님은 세르지오와 그의 동반자가 구도자들에게 성전과 영원한 가족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세르지오는 모임을 마치는 기도를 하던 중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했다. 아들은 축복을 받은 후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아들이 뇌 동맥류 파열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진은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식을 접한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비통한 중에도 나와 릴리아나는 세르지오의 시신과 소지품을 수습하러 페루로 가야만 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인지

삽화: 수잔 시몬스

세르지오의 여동생인 히메나가 오빠의 죽음에 관하여 나눈 이야기가 **lds.org/go/121819**에 있다.

한 교회 회원이 우리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도움을 준 것이 무척 고마웠다. 성신도 우리에게 위안과 견뎌 낼 힘을 주셨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비극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세르지오를 잃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 주신 친절하신 자비에 감사드린다. 아들이 사망했을 때, 나는 감독이었고, 릴리아나는 세미나리 교사였으며, 딸 히메나는 와드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느라 바빴고, 그 덕분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견고했다. 세르지오가 어차피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다면, 그 시기를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이 강했을 때로 잡아 주셨다는 것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까지나 감사드릴 것이다.

또한 세르지오가 주님을 섬기던 중에, 그리고 "[그의] 이웃을 섬"기던 중에 이 생을 마감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모사이야서 2:17) 주님은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2:46)

성신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감내하셨을 슬픔을 조금은 맛볼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화를 낼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셨다. 내게 평화가 찾아왔고, 그분의 뜻과 세르지오가 왜 그때 떠나야 했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릴리아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마음을 느꼈다.

위안을 주는 말씀

2005년, 세르지오와 히메나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루스는 얼마 후 성약 안에서 태어났다. 세르지오는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루스에게 침례를 주었다.

세르지오가 사망한 지 사흘 후, 루스는 세르지오를 꿈에서 만났다. 루스의 아홉 번째 생일날 밤이었다. 루스는 오빠와 온종일 손을 잡고 걸으며, 오빠가 루스에게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 우리는 계속 복음대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세르지오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

루스와 히메나는 세르지오와 각별한 사이였기에 그를 무척 그리워한다. 루스는 아직도 그 꿈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는다.

어느 날, 릴리아나와 나는 세르지오의 유품을 살펴보던 중에 세르지오가 사용했던 선교사 일일 계획서를 발견했다. 계획서에는 매일, 매 쪽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 복음대로 생활해야 함을 기억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생이 끝난 후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세르지오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이 확실함을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참됨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지하여 세르지오의 모범을 따른다.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살타에 산다.

우리 삶이 가슴 설레는 성장의 여정이 되기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성한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편집자 주: *리아호나*용으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홀런드 장로는 새롭게 나온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의 기초가 되는 개종의 강력한 원리들을 이야기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최근에 주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서 언덕과 계곡,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가슴 설레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좀 더 높이 올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한 선지자에게 작별을 고했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선지자를 지지했습니다. 상호부조회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모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협의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와 같은

사진: GETTY IMAGES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제사들과 장로들을 하나의 정원회로 합치시는 것을 보았으며, 신권 소유자들과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방식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놀라지 않으셨다면, 최근 제일회장단이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새로운 자료들과 그에 상응하는 초등회와 주일학교 자료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업, 가족 역사 연구, 성전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수정된 정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및 개정된 교재 이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업은 항상 궁극적으로 사람에 관한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조직이나 일정, 혹은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시든 그것들에 상관없이 그분께서 진정으로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개선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가는 길의 다음 모퉁이 너머에 있는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을 볼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달성하고 우리의 하늘 부모와 같이 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9조에 선언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 믿"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데에는 특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꿈이 너무 높아서 절대 이루지 못하리라 믿었던 것까지도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이사야 55:8~9 참조)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커틀랜드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도 모[릅니다]."[1]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해 온 일을 뒤돌아보면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한일서 3: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같이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3:20)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이것이 길은 멀어도 정말 신나는 여정처럼 들립니다! 높은 목표지만, 이러한 신성한 목표야말로 회복된 복음을 정말로 매력적이고 가슴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가 지상에 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메아리, 즉 기억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장 우선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가 결코 쉽게 성취될 수 없는 대단히 힘든 목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전세에서, 그리고 필멸의 삶인 현세에서 여행을 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배움과 변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달성하고 우리의 하늘 부모와 같이 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과정을 영원한 진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개종*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단순히 *회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에는 *배움*이 포함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윗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다리에 오를 때에는 아래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승영의 원리를 모두 다 배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2]

이제, 배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저는 배움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좋아합니다. 또 그 말을 평소보다 좀 더 훌륭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의 축적이 배움의 일부기는 하지만, 배움이 단지 복음의 목적을 위해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움은 단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뜻하는 배움은 우리가 성장과 변화, 향상을 이끌어 내는 통찰력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모든 진리를 지니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배우는 것과 마음을 개종으로 이끄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묶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간증은 성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때 커 갑니다."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진척시[키는]" 신앙을 키웁니다. 이러한 개종의 필수 요소들은 우리를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3]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알거나 감람나무의 비유를 도식으로 그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종류의 배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들을 더욱 많이 알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다른(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관계된 일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류의 배움은 수업에서 다루거나 45분짜리 공과에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전, 선지자, 부모, 햇빛, 비 오는 날, 영적인 느낌 및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교훈. 그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관해 배울 기회를 주는데, 이는 참으로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모세서 6:63) 결국 주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려고만 한다면 자녀와 친구들, 이웃과 직장

가정은 교실인 동시에 실습실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완벽하게 결합되어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동료, 버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시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점원과 어울리는 시간 등 그런 일상적인 순간에 언제 어디서라도 기꺼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이 모든 진리도 우리가 말씀을 시험함으로써 그것을 가꾸라는 앨마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야고보가 말한 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타거나 말라버리는 수많은 씨앗이 될 뿐입니다.(마가복음 4:1~20; 야고보서 1:22; 앨마서 32:27~43 참조)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따라 행할 것을 선택할 때, 간증이 자라납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그런 다음,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계속해서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진리가 우리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변화하고 더욱 진리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4]

복음 학습의 중심은 가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에서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5] 첫째로,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분명히 교회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감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서는 오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 식사가 아주 양질의 식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교회 공과라 하더라도 한 시간짜리 교회 공과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니파이후서 31:20) 일의 전부로 삼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교실인 동시에 실습실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완벽하게 결합되어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교실이라는 장소만으로 이 살아 있는 실습실의 경험이 재현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정은 천국을 반영하며 우리가 이곳에 추구하러 온 영원한 목적을 상기시키는 곳이라는 것, 또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상의 가족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느꼈던 사랑을 지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느끼게 해 주는 유일한 곳이며, 가정은 부모의 사랑으로 환영받으며 지상으로 오게 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도덕적 가치와 참된 원리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6]

혹시 제가 부모 여러분을 놀라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울이는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가정에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쉽게 ... 짐을 지"도록 여러분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4:15)

복음 학습을 위한 교회의 지원

관점을 넓혀 복음을 공과 교실 밖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해서 공과의 중요성을 작게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의미 있는 학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 중심의 학습에서 교회의 지원은 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면,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재나 칠판, 의자의 배치나 심지어 뛰어난 토론 질문에 집중하는 것조차 올바른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한다

후기 성도 연구자 및 비 후기 성도 연구자들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 중심을 둔 종교적 활동은 자녀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경우,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에 확립되어 있었던 종교적 신념과 양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신의 가정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의의 원리 위에 세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유익을 주어 영적 및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된 교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가족 기도를 하고, 매주 최소 몇 번의 가족 경전 공부를 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한 후기 성도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결혼할 확률이 20퍼센트 더 높았다.

물론 자녀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부모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충실히 행하더라도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교적 믿음 및 행동이 세대 간에 전달될 가능성은 부모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자녀와 친밀하고 사랑에 찬 관계를 맺으며, 종교적인 주제로 열린 대화를 나눌 때 더 커진다. 가족이 한 개인의 종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에, 상당한 수의 "탕자"들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안으로 돌아온다.

이 연구는 가정에 중심을 둔 복음 공부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준다. 동시에, 새로운 회원이나 복음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회원들에게는 교회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회원들은 다른 가족과 가정의 밤을 같이 하거나, 가족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가정에서 종교에 관해 대화하는 긍정적인 방법들을 관찰하거나, 더 많은 경험을 한 회원들과 함께 성역을 베푸는 등의 모범 및 조언을 참고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영원한 진보야말로 우리의 노력과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며, 의자, 분필, 시청각 자료 등은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사용합니다. 구주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교사가, 또는 공과가 설령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를 발표하더라도 그 교리 중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고 승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 회원 개개인의 삶과 사랑, 생각과 감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복음을 배우는 것을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습자들은 "남들이 운동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후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힘이 커질수록 그들은 자신감을 얻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신앙, 소망, 사랑의 교실" [총관리 역원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 2014년 2월 28일], lds.org/broadcasts)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수업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었는지, 시간을 얼마나 잘 채웠는지, 교사가 수업 후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석했는지가 아닙니다. 성공은 배우는 이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렸습니다. 에레로 형제는 지난주 수업에서 자신이 겪는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들을 경전에서 찾았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상황, 즉 그 주 동안 그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능력을 키워줄 만한 어떤 일이 수업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번 주에 그 경험을 공과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슈밋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자신도 그렇게 도우시리라 믿는 소망과 신앙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남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교사라면, 새로운 교육 자료가 이전 교재와는 무언가 다소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 사항이 줄어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자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의 경험과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발견하고, 이끌어 내도록 고안되었습니다.("여러분은 독창을 하는가, 아니면 합창단을 이끄는가?" 참조)

여러분은 독창을 하는가, 아니면 합창단을 이끄는가?

교사들은 종종 마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하는 대신, 자신을 합창단 지휘자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교사의 역할은 고유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토론을 이끌고,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영감을 주며, 모든 것이 순수한 교리를 향하도록 한다. 하지만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서 나온다. 교사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도록 권유하고 영감을 주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복음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공과에 와서 우리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발견을 함께 나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합창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학습 과정이 신약전서이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과에 마태복음 5장의 배경에 관한 흥미 위주의 잡다한 정보나, 산상수훈에 관한 현인들의 영감 어린 인용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창의적인 활동들을 준비해 와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여 끝나기 5분 전까지 공과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반원들이 하길 바라는 만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대로 생활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제가 반원들 각자를, 그리고 이 원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의미를 줄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수업에서 영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서로 교화하고 지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삶과 경전의 귀중한 교리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순간에 신앙을 고양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탐구로 이어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감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물론, 초등회에서는 제 역할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들을 45분 내내 즐겁게 해 주거나, 제가 하려는 말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지는 않습니다. 제 목적은 그들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음 진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 교사인 부모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을 놀라게 하고 교사들도 놀라게 했군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의 두 가지 생각으로

성공은 배우는 이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공과 교재보다도 그들을 잘 압니다. (2) 복음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려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르침에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은 이 교회의 궁극적인 교사이시며, 다행히도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커다란 소망은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장의 새로운 고지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의무로 느껴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해도 복음 진리가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다른 신앙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커진 것을 보고, 자신들이 본 빛을 얼마라도 자기 가족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들이 그들을 찾기도 전에 먼저 그들이 선교사들을 찾을 것입니다. 성전 결혼, 가족 역사 사업, 신권 권능과 의식, 도덕적 순결,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일은 마음 깊이 개종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일학교에서 온전하고 적절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매일 복음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얻을 축복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울 때, 매일 빛과 진리를 모아 우리의 일부로 만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홍보 문구나 습관처럼 말하는 식상한 표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그분이 하셨던 방법대로 복음을 나누려 노력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크고 작은 길을 걸으며, 길 잃은 사람을 찾을 기회입니다. 무리와 함께 팔복의 산에 오르고, 떼 지어 갈릴리 해변에 앉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 고침을 받을 기회입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감동적인 찬송가 중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가 쓴 이 시적인 가사를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생명과 빛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시려고
길 예비하셨네[7]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울 때, 매일 빛과 진리를 모아 우리의 일부로 만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교리와 성약 50:24; 강조체 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37쪽.
2. *가르침: 조셉 스미스*, 221, 268쪽.
3.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6쪽.
4. 댈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43쪽 참조;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6~109쪽 참조.
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4.
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0쪽.
7.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리적인 원리에 관해 숙고하고 기도할 때 성신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속삭일 것입니다. 경전에 묘사된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상황과 연관된 원리가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생활하며 순수한 마음, 즉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자 하는 진실된 의도로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계시적인 경험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고, 성신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새로 나온 *와서 나를 따르라* 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개인 및 가족, 주일학교, 초등회를 위한 새로 나온 자료 *와서 나를 따르라*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경전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되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자료는 어떻게 함께 사용해야 할까?

- 2019년에 여러분은 신약전서를 공부하게 된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에는 가정에서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도와줄 제언이 나온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 자료를 활용한다.
- 매주 교회의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들은 신약전서의 같은 장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토론할 것이다.
- 여러분이 주일학교 또는 초등회 교사라면,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을 활용하여 먼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공부를 강화한다. 여러분은 교사용 교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교재는 반원들을 참여시키는 수업 경험을 여러분이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 반원들은 집에서 하고 있는 경전 공부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자료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comefollowme.lds.org**를 참조한다.

결정과 기적: 저는 이제 압니다

이리나 브이 크랏저

본 연재 기사는 *At the Pulpit: 185 Years of Discourses by Latter-day Saint Women*[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조명한다. 이 책은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읽어 볼 수 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저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전 복음 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 압니다. 제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딸도 낳았습니다. 곧 대학도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제 결혼생활은 … 천천히 망가졌습니다. … 딸과 제가 먹을 간단한 음식도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배고픔, 우울증, 그리고 안 좋은 결정들 때문에 제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저는 불운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배운 대로라면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1917년 공산 혁명 후로 소련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신은 없으며 공산당과 레닌 할아버지만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학교도 갈 수 없었으며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모두 무신론 수업을 필수로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딱한 결정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이 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 주기 위해 양심을 자극한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인생은 끝에 무덤만이 있는 어두운 터널 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 저는 기도를 할 줄

크랏저 자매에 관하여

이리나 발렌티노바 크랏저(1965년생)는 시베리아 바르나울에서 살았다. 이리나는 그곳에서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심장병 전문의가 되었다. 하지만 의료는 수익성이 좋은 분야가 아니었고, 병원은 몇 달씩 봉급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1996년에 학대를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후, 낮은 임금으로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느라 야간 근무까지 하던 이리나는 지칠 대로 지쳐 절망감을 느꼈다.

이리나는 무신론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며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느 저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간청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그걸 좀 알려 주세요. 아마 당신은 저에 대해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당신께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미물일 뿐인가요?"

몇 주 후, 1996년 8월에 이리나는 한 남성을 만났다. 그 사람은 이리나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고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미국 유타주에 도착한 지 8개월이 지난 1998년 4월, 이리나는 테이 크랏저와 결혼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크랏저 자매는 유타주 오렘에서 상호부조회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구두점 및 대문자를 수정하였다.

몰랐고, 단지 꿈을 꿨습니다. … 언젠가 제 삶의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행복하고 밝게 시작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

[그때] 몰몬경이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저와 같은 죄인들을 돕기 위해 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이 그토록 비참해진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겁니다. … 제 삶이 좋지 않다는 것과 저의 잘못된 결정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며 밤새 간청했습니다. … 날이 밝아올 때쯤에는 진이 다 빠져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빛이 들어왔을 때, 평안과 안도를 느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내 손이 있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것이니라. 하지만 변하겠다고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했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인도와 도움을 원했습니다. …

러시아에서 겪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뻤던 그날 밤, 저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안 가 미국으로 오고 복음에 대해 더 배우며 곧 침례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 제 딸이 미국으로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많은 기적을 주셨기에 제 인생에 미치는 그분의 신성한 손길을 의심할 찰나도 없었습니다. …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십시오. 온몸의 모든 땀구멍과 온 영혼으로 그분의 빛을 들이키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터널에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앞에 더 밝은 빛을 비춰 주는 그분의 사랑의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

헤더와 사진: GETTY IMAGES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구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특히 이 고대 기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티븐 피 샘크
교회 신권 가족부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울린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은 영원의 메아리로 울렸을 것이다. "내가 …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 그들의 … 그 근심을 알고 …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 건져내고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애굽기 3:7~8, 13~14)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 여호와로 알려진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구속을 구해야 할 근원은 바로 자신임을 밝히셨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대의 이스라엘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로 구원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셨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교리와 성약 68:6; 강조체 추가)

생명의 말씀인 경전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 및 모든 세상 문제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약전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모든 경전과 마찬가지로 구약전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특히 이 고대 기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전에서 그리스도를 찾든 우리가 찾는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초래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극복할 이스라엘의 *영원한 해결책이시다*. 리하이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 자신을 바치사 …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니파이후서 2:7; 강조체 추가) 우리가 경전을 찾을 때 구하는 해답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주, 즉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그러나 구약전서의 시적이면서도 예스러운 문체에서는 영원한 문제와 그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때론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고대 기록의 서사에서 표면 아래에 숨겨진 그분을 발견해 내기를 기다리신다.

시내 산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여러 의미가 *되신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전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가르침의 예시이다.

구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구약의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는 "메시야의 예표이며 그림자"로 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본을 찾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그것을 거듭 활용하는 것은 유익하고 합당한 일입니다."(*The Promised Messiah* [1985], 453)

구약전서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들의 서사가 담긴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피상적 차원의 가르침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일관된 주제이며, 따라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합당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음은 구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탐색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다.

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니파이후서 11:4, 모세서 6:13 참조)
2.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는 상징이다.(see Bruce R. McConkie, *The Promised Messiah* [1978], 451)
3. 회개는 예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앨마서 26:21~22 참조)

나는 … 너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

동물 번제와 가죽옷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구약전서에서 *속죄*라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81번 등장한다. 그중 73번은 원래 히브리어로 *kaphar(카파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는 "덮다"라는 뜻이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후, 아담과 이브는 주님께 양 떼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다. 천사는 후에 그들에게 이 관행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을 의미함을 가르쳤다.

동물 번제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신권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덮는 의식과 더불어 계속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거룩한 의식을 받을 때,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 미치는 영향에 더는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가 더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창세기 3:21; 37:3; 출애굽기 40:14~15; 에스겔 16:1~12; 마태복음 22:11~12; 갈라디아서 3:26~29; 니파이전서 11:21, 32~33; 앨마서 34:14~16; 모세서 5:5~8; 7:47

나는 … 생명의 떡이라

만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달콤한 맛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라고 불렀다. 매일 양식을 모으고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내내 생명을 유지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며, 이 지상 여정에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이 필멸의 여정 내내 그분이 주시는 감미로움과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6:4, 12~21, 31; 신명기 8:2~3; 요한복음 6:26~35, 48~58, 66~68; 제3니파이 20:8

나는 ... 생수의 근원이라

호렙 산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호소하자, 모세는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모세는 주님께 받은 지팡이로 호렙 산(시내 산)에 있는 어떤 반석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명대로 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 여정에 지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갈보리에서 매질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솟아나게 할 열쇠를 받은 선지자를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속죄의 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출애굽기 17:1~6; 민수기 20:8, 11; 요한복음 4:10~15; 고린도전서 10:1~4; 교리와 성약 28:2

나는 ... 너희를 고치는 자라

장대 위에 들린 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행 동안 겪는 어려움으로 선지자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자가 죽었다. 모세는 그 뱀들을 없애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물린 사람들에게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다. 물린 자가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고난 중에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에 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항상 거두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은 속죄의 축복을 통해 시련으로부터 독을 제거하실 수 있다.

민수기 21:4~9; 요한복음 3:14~16; 베드로전서 2:24; 앨마서 33:18~22; 힐라맨서 8:14~15; 제3니파이 27:13~15

빨간 전구

로리 리스

단순한 성탄절 트리 장식 하나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게 해 주었다.

성탄절 느낌이 들지 않는 성탄절이었다. 캐럴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 놓고 즐거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장식품 보관함을 꺼낼 때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눈사람 쿠키 통은 같이 쿠키 구울 사람이 없다는 것만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산타 조각상은 양말을 걸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 포장지는 아침이 되어도 들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올해에 막내가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떠났다. 우리집이 외롭게 느껴지고, 사방이 다 조용했다. 나는 산타와 관련이 없는 장식품들만 고른 뒤 나머지는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혼자서 트리를 장식해야 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트리 장식을 거는 손자들의 사진들을 올렸다. 나는 지난날이 그리웠다.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지 의아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랐나? 하고 생각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전구를 바라봤다. 빨간 전구였다.

색깔을 유심히 봤다. 진한 빨강. 전구는 짙은 붉은색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단출하게 남겨진 장식품들을 보았다. 성탄 그림 몇 개,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든 구유, 금색으로 NOEL이라고 써 있는 장식품 하나. 눈물이 핑 돌았다. 전구는 빨간색이었다. 마치 구주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처럼 색깔이 붉었다.

나는 내가 항상 장식과 쿠키 만들기,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들떠 하는 모습만을 성탄절의 행복으로 여겨 왔음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 우리 자녀들과 그 아이들의 영원한 가족들을 생각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느낀 모든 기쁨과 그 아이들이 자기 가족 안에서 느낄 모든 기쁨을 떠올렸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던 그 아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곱씹어 보았다.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의 선물을 곰곰이 생각하자 달콤한 따스함이 마음에 피어났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누가복음 2:10; 강조체 추가)

트리 장식을 계속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과 삶을 생각했다. 그분은 부러진 것을 고치고, 짓밟힌 것을 세우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고, 불완전함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고, 고통에 대한 연민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다시 한번 그분과 살 수 있게 하고자 세상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게 하시고자 오셨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느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오리건주에 산다.

사진: GETTY IMAGES

봉사를 통한 성장

포 니엔 (펠리페) 처우, 페트라 처우

우리는 새로운 지부 회원들이 봉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히 부름을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01년 12월 타이완 타이페이 성전에서 가오슝 제7와드 회원들과 함께.

2000년에 우리 부부는 타이완 가오슝 스테이크에서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의 지부 회장과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성찬식 모임에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가족과 네 명의 활동 장로, 선교사들을 포함해 스무 명 정도가 참석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두 명의 장로마저 선교사로 내보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지부를 채워 주실 것임을 믿었다.

지부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권고를 기억했다. 힝클리 회장님은 모든 개종자가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1] 우리는 새로운 회원들이 봉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히 부름을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모든 구도자를 소개했고, 그들은 침례를 받은 지 2주 안에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다.

새로 침례받은 형제들은 모두 한 달 안에 아론 신권을 받고,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 스테이크 대회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새로운 장로들은 의식을 집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나중에 신권을 받은 다른 장로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배우고, 배운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배운 것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지부 회원들은 서로 모범이 되고 조언자가 되며,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지하고 도울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들과 단합하기 위해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 가정의 밤, 와드 활동, 각자 가져온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 등을 운영했다. 그들은 일요일과 평일에 하는 종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 종교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은 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이 작은 지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버스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타이완 타이페이 성전에 매달 참석하여 봉사했다. 보통 우리 스테이크는 성전 방문자로 버스 두 대를 채우기가 힘들었다. 지부가 성장하고 각 가정이 자신들의 성전 축복을 위해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지부 회원만으로 버스 한 대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해에는 스테이크 회원들이 성전 방문 버스를 한 대 채우고, 작은 우리 지부 회원만으로 또 한 대의 버스를 채운 일이 두 번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이크는 모든 와드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각 와드 회원만으로 성전 방문 버스 한 대를 채우라고 권고했다.

두 번째 해에는 우리 지부의 개종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3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했고, 성찬식 참석자 수도 활동 장로 25명을 포함하여 100명가량으로 성장했다. 우리 지부는 와드가 되었고, 낡은 교회 건물도 새로운 예배당으로 개조했다.

스테이크에서 가장 작았던 지부가 가장 강한 와드가 되었다. 이는 모든 개종자가 친구, 부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사진: 글쓴이 제공

달콤한 성탄절

우리 가족의 성탄절은 항상 추억으로 가득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남 선교부로 떠났을 때, 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얼마나 외로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교 지역에서 맞은 첫 번째 성탄절에 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동반자와 단둘이 그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자기 연민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성탄절 전야에 한 친절한 가족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행복한 그 가족의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이 더 보고 싶어졌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음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잊으려 억지로 잠을 청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이 끝났을 때 안도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듬해에는 지난 성탄절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선교 지역에서 성탄절을 더 유익하게 보낼지 고민해 보았다. 작년에 느꼈던 슬픈 감정은 내가 구주가 아닌 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성탄절은,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이기에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선교 지역에서 더 유익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동반자와 나는 막대 사탕을 사서 성탄절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함께 상의한 끝에 동반자와 나는 막대 사탕을 사서 교회 회원, 구도자, 어린이 그리고 성탄절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기로 결정했다. 성탄절에 부를 찬송가도 연습했다. 성탄절 당일에 사람들을 만나 찬송가를 부르고 막대 사탕을 나눠 주는 동안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인도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과 마주쳤다. 성탄절 선물을 받으셨는지 여쭈자 받았다고 하시며, 멀리 사는 자식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우리는 "저희가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막대 사탕 하나를 드렸다.

"이걸 먹으면 내 입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달콤해지겠구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 중 최악의 성탄절을 보냈던 건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닌 구주께 집중했을 때, 나는 최고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면 주님께서는 성탄절은 물론 일 년 내내 우리의 영혼에 달콤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

윌슨 코레이아 도스 산토스, 브라질 페르남부쿠

삽화: 엔야 토드

왠지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이름을 물었다.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가족은 성탄절마다 음식, 장갑, 모자, 기타 생필품을 가방에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 준다. 2016년 성탄절 전야, 우리가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추위가 찾아왔다. 두꺼운 옷으로 무장했는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집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낡은 담요를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내 남편 데니스는 차를 세운 후 우리 아들 조나단을 데리고 그 남성에게로 가서 선물 가방을 건넸다. 딸 애비와 나는 차 안에 남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데니스가 가방을 건네자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웃음이 번지며 환해졌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보통은 대화를 길게 나누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달랐다.

몇 분 후에 데니스는 차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었다.

"별일 없었죠?" 나의 말에 데니스는 이렇게 답했다.

"응, 내 파카를 주려고요. 나보다 저 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몇 번 입지 않은 고급 파카였다. 데니스는 그 남성에게로 돌아가서 두툼한 파카를 입혀 주었다. 그 남성의 얼굴은 한층 더 밝아졌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왠지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차 문을 열자 애비가 따라나섰다. 우리가 다가가자 데니스가 웃음을 지으며 그분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이름을 물었다.

그분은 내 손을 잡더니 따스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헤수스입니다."[헤수스(Jesús): 예수의 스페인어 발음—옮긴이]

우리 가족은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우리 구주의 이름과 같은 그 남성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계속 생각했다. 순간 구주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날의 일은 나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

샤넌 나이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삽화: 앨런 간스

나는 내가 쓰던 지팡이를 포장한 뒤 편지 한 통과 함께 내게 신권 축복을 준 그 형제님에게 성탄절 선물로 드렸다.

두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나는 자전거를 타던 중 트럭에 치이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1년 성탄절 무렵이었다. 나는 이전 와드에서 알았던 한 형제님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보았던 분인데, 왜 그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졌는지 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부탁할 만한 다른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도 여럿 계셨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나는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당시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기에 그곳에 계신 형제님 중 한 명에게 축복을 부탁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신권 축복을 부탁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 형제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꼭 그 형제님에게 부탁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의식이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넸다. 형제님은 그러겠다고 하셨다.

나중에 만났을 때, 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형제님에게 꼭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은 기꺼이 돕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형제님 한 분을 방으로 부른 뒤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지만 정작 축복이 끝났을 때,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축복을 받은 건 좋았지만, 생각만큼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떴다.

눈을 뜨자 방 안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럴 수가! 나는 그 형제님에게 왜 나에게 축복을 주어야 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여쭈었다. 형제님의 대답에 나는 마음이 겸손해졌다.

"자매님만을 위한 축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저에게도 축복이 되었어요. 내일 제 조카가 침례를 받는 날이라 조카에게 축복을 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데다가 가족이 침례를 받는 것도 거의 20년 만의 일이에요. 가족 대부분이 침례식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줘도 될 만큼 제 신앙이 굳건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네요."

며칠 후, 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시력을 회복했다. 나는 지팡이를 포장한 뒤 편지 한 통과 함께 그 형제님에게 성탄절 선물로 드렸다. 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건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대단한 그 무엇도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형제님께 신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통해 기쁨을 주신다. 성탄절에 내린 이 축복은 내 시력을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겸손하기 그지없던 그 신권 소유자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

안나 핑게르레, 독일 헤센

삽화: 캐럴린 비버트

몰몬경: 특별한 선물

남편과 함께 마닐라 필리핀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던 2016년, 성탄절 전야에 나는 누군가에게 몰몬경 한 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표지 안에 내 간증을 적고 마닐라 성전 엽서를 넣었다. 엽서에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빌었다.

그런 다음, 나는 아파트에서 나와 길을 건넜다. 근처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하는 경비원 한 분이 두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가 외쳤다. 그들에게 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서 내 소개를 했다. 한 남성은 선교사 훈련원의 관리인이었고, 다른 남성은 농부였다. 두 사람 모두 교회 회원이었다.

나는 성탄절 선물로 몰몬경을 받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고 물었다.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몇 분 후에 친구가 성전 경내로 올 거라고 말했다. 친구에게 몰몬경을 주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나는 감정에 북받쳐 가방에서 몰몬경을 꺼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야기하며 책을 건넸다.

우리는 모두 영을 느꼈고, 농부는 친구가 몰몬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농부의 친구가 성전 경내에 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길 기도했다.

약 15분 후, 선교사 훈련원 경비에게서 전화가 왔다. 농부의 친구가 왔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바로 그를 만나러 나갔다. 농부의 친구는 상선의 선장으로, 이틀 후에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했다. 그는 몰몬경을 줘서 고맙다며 떠날 때 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책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영이 내게 그것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해 성탄절에 나는 아주 특별한 선물, 즉 몰몬경과 그것이 참되다는 내 간증을 누군가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 역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답하시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선물해 주셨던 것이다. ■

클로데트 바이비 버트, 미국 워싱턴주

선장은 몰몬경을 줘서 고맙다며 떠날 때 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삽화: 에바 바스케즈

엠 조셉 브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중대한 결정 중에 들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신 채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1년 가을에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부임한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게 되어 마음이 무척 설렜습니다. 아내인 에밀리와 저는 선교사 숙소를 점검할 겸 선교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과테말라시티에서 더 외진 지역 중 한 곳인 솔롤라라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우리는 한 시위대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시위가 여러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시위대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우회로가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다른 길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따랐습니다.

- 그 길은 험하다.
- 해진 후에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 그 길에는 강도 떼가 빈번히 출몰한다.

열성적인 신임 선교부 회장과 그의 아내답게 에밀리와 저는 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조금 후, 우리는 가파른 낭떠러지로 보이는 비포장도로의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면서 에밀리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오래 전에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저는 도로에 나뭇가지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주의해서 운전하세요"라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멈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하나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차는 교량이 유실된 6미터 높이의 절벽 턱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쪽으로 간신히 기어 나왔지만, 에밀리는 자기 쪽 차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자리로 기어와 제 쪽 문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신임 선교부 회장, 교량이

사진: GETTY IMAGES

유실된 제방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내는 중상" 또는 "신임 선교부 회장 부부, 진입하지 말아야 할 도로에서 강도를 당한 뒤 실종됨" 등의 기사 제목이 상상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저는 자동차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믿기 힘들게도 갑자기 뒤에서 대형 바나나 트럭 한 대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우리를 보고는 다가와서 웃음을 터트리며 어리석은 미국인들이 처한 곤경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 위에 놓인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잔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기적처럼 그들은 트럭에서 체인을 꺼냈는데, 제가 과테말라에서 3년간 봉사하는 동안 체인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곳을 떠나기 전,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도로에 가로질러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북미 사람이 오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과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영감, 지시가 강력하든 가볍든 간에 반드시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음성은 경전, 계명, 성신의 속삭임,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의 권고 및 좋은 친구들의 조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이런 영감과 경고에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언 3:5~7)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알 수는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훌륭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의 선교 사업에서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격언이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한동안 그 개념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성공을 가져오고, 정확한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1]

우리 가족과 선교부에서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정확한 순종은 기적을 가져다줍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순종의 의미를 저도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에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 많은 부분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순종의 핵심은 회개여야 합니다. 정확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와 영감, 계명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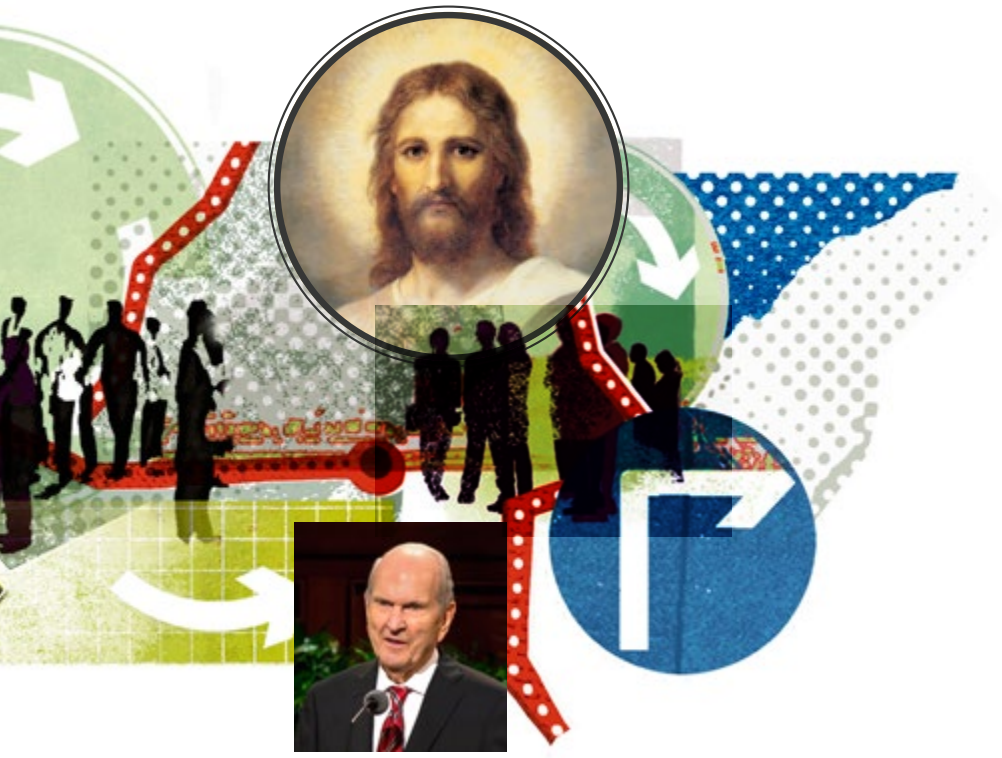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정확한 순종이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뛰어났던 아담이 왜 희생을 드리냐는 질문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6)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아내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정확히 순종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200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에밀리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전하시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신을 새기는 것과 '의학적 목적 이외의 이유로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님들이 귀걸이 한 쌍을 달기 위해 최소한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괜찮습니다."[2]

제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둘째 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의 아내도 몸소 순종했습니다. 아내는 귀에서 두 번째 귀걸이 한 쌍을 뺐고, 그

어둠에 계신 빛, 사이먼 듀이; 그리스도의 모습, 해리 앤더슨



후로 다시는 그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내에게 이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권고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중요해 보이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요한복음 14:15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하나의 분명한 경고의 음성은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힝클리 회장님이 요청하신 그런 작은 일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중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고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 경고는 도로 위에 놓아둔 잔가지처럼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가벼운 경고일 수도 있고, 도로를 가로질러 놓인 한 그루의 나무처럼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연차 대회를 읽거나 들으시도록 권유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에 어떤 가지나 나무를 두셨을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좋지. 하지만 주님께 영감, 권고, 경고와 지시를 구했지만, 좀처럼 응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쩌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러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일들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지도자들을 따르며, 다른 좋은 선택을 한다면, 즉 제가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절한 경고 없이 제가 큰 실수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그분의 경고와 영감과 계시를 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특히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성신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놓아두신 경고의 잔가지와 나무들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식별해 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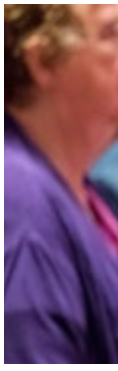
2017년 10월 1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서 전한 "Heeding the Voice of the Lord"에서 발췌함.

주

1. Russell M. Nelson, in R. Scott Lloyd, "Elder Nelson Delivers Spiritual Thanksgiving Feast to MTCs,"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Dec. 4, 2013, news.lds.org.
2. 고든 비 힝클리,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8쪽, 번역 수정.

2018년 6월 1일에 열린 1978년에 받은 신권에 관한 계시를 기념하는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한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발췌함.

하나가 되어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기념해야 할 이유

1978년에 주어진 신권에 관한 계시는 당시 성인이던 **후기 성도들의** 기억에 뚜렷이 새겨진 사건입니다.

1.

좀처럼 울리는 법이 없던 전화가 울리며 그 소식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 총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장소로 우리가 짓고 있던 산속의 집 뒤뜰에서 당시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당시 막 발표된 신권에 관한 계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 저는 일을 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들과 함께 옮기던 흙더미 위에 앉아 두 아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은 신권에 성임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권에 관한 그 계시가 온 것이 어째서 그토록 기뻐할 일이었을까요? 법조계에서 공부하고 일하던 청년 시절에 저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17년간 살았습니다. 저는 신권 제한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과 그러한 제한들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그 이유를 찾던 이들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을 목격하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당시 제한의 이유로 제시되던 것들을 공부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저는 대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계명과 지시에 관한 이유를 좀처럼 알려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를 이끄는 선지자들에게 충실하고, 이러한 제한이 시작된 무렵에 주어졌던 약속대로 모두가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누릴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1978년 6월 8일에 드디어 그날을 맞았던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제 얼굴을 흠뻑 적셨습니다.

II.

1978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회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를 기념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 면에서 교회는 신권에 관한 계시에 신속히 반응했습니다. 즉시 신권 성임이 되고, 성전 추천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프리카계 회원들에게 가해진 제한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이유들은, 그것이 비록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일지라도 지체 없이 공개적으로 부인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이에 반해, 각 회원들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며"

일부는 그 계시의 결과를 즉시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일부는 서서히 받아들였으며, 일부는 지난 40년을 포함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인종차별적 태도를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견지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옛 것이 되어 버린 이유를 찾는 등의 과거를 재검토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과거의 실망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의 기회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정하신 시간을 신뢰했으며 그분의 선지자가 주는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생명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다는, 주님의 선지자가 가르친 가르침의 영원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야곱서 2:21)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모두에게,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수할 새로운 추진력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42:58)

III.

계시되지 않은 것들에 관해, 또는 과거에 제한된 이해력으로 설명한 내용에 관해 염려하는 것은 의심과 좌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한 염려를 느끼시는 모든 분께 우리는 사랑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기를 고대하며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 “우리는 모든 사람이 … 온갖 편견을 제거하고 더 예의를 갖추어 일하도록 권유합니다.”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니파이후서 26:33)

앞날을 생각할 때, 그 계시가 신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 어떤 부류에 대해서도 편견에 찬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신성한 결정입니다. 인종 차별이야말로 아마도 오늘날 편견을 불러오는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일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것에 관해 회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중 많은 부류가 인종, 문화, 국적, 교육 혹은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한 편견 때문에 박해와 불이익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과 책임을 가진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모든 편견을 뒤로하기 위해 서둘러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와 함께 모임을 한 직후,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단체, 정부가 온갖 편견을 제거하고 더 예의를 갖추어 일하도록 권유합니다.”[1]

하지만 편견에 찬 태도와 행동을 없애기 위해 하나가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가 성전에 들어가는 합당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특정한 규칙을 고수하는 것은 편견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약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신성한 축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신성한 요구 사항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온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사탄의 계획을 확립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필멸의 인간은 이미 전세에서 사탄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 계획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성약과 계명을 선택하고 지킬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등이란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Ⅳ.

우리는 미래를 고대하며 신권 계시 40주년을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놀라운 아프리카계 회원들, 특히 편견이 사그라드는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신앙과 충실함으로 견뎌 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1978년 이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한 그 계시의 영광스러운 영향력에 우리의 관심을 함께 집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들은 당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권세를 부여받은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그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2]

지금은,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몰몬경의 선지자를 통해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26:24)라고 선언하셨고,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고 선언하신 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

주

1. "First Presidency and NAACP Leaders Call for Greater Civility, Racial Harmony," May 17, 2018, mormonnewsroom.orgmormonnewsroom.org.
2. 공식선언—2.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다리를 놓으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아주 오래 전, 한 까다로운 율법사가 구주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1]

이 가르침은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시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내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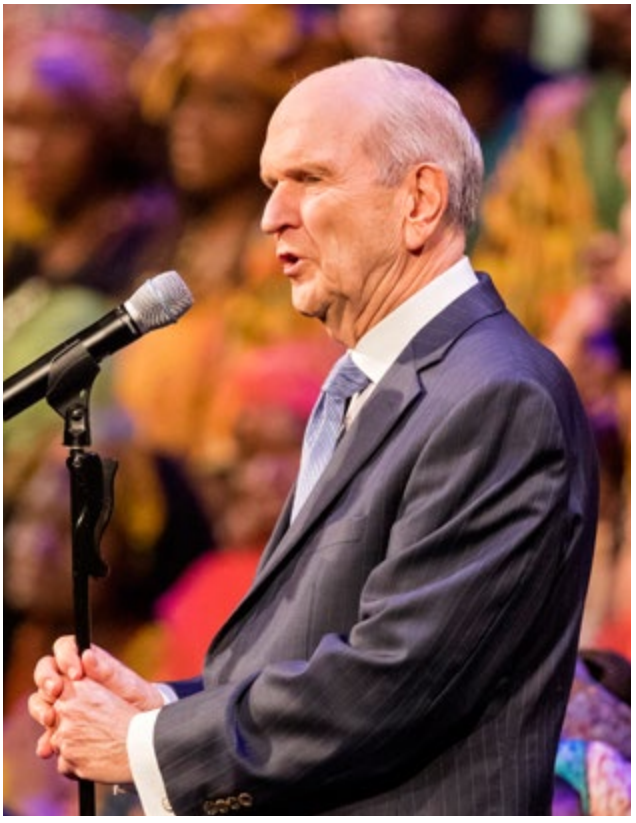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시며 이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2]

절정의 시기에, 그리고 후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에 관한 당신의 핵심 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옥스 회장님도 몰몬경의 다음 가르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3]

온 세상의 대륙과 섬나라에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충실한 이들이 성약의 길에 들어서서 사랑하는 우리의 구속주께 나아갈 때, 문화나 언어, 성별, 인종, 국적 등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남성들이 참으로 우리의 형제이며, 여성들이 참으로 우리의 자매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불화의 벽을 허물고 열심을 다해 협동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편견의 짐을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기를, 또 우리가 서로 올바르게 동행하기를 바라는 저의 기도와 축복을 제 말을 듣는 모든 분에게 전합니다. ■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주

1. 마태복음 22:36~40.
2. 교리와 성약 38:24~25.
3. 나피아후서 26:33.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풀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자 최선을 다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이다.

에릭 비 머독
교회 잡지

우리는 모두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내거나, 누군가가 외로워하거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은 사실을 알아챈 적이 있다. 어쩌면 자기 와드나 지부에서 누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통 알기가 어렵기도 하다. 누군가가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어려움을 겪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염려를 전하는 정도라도 말이다. 기회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언제라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염려와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성역*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성역

성역. 아마도 최근 들어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듣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주로 구주나 선지자, 사도들의 성역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성역이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성역을 베푼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만약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행하셨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뜻한다. 성역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었다.]"(마태복음 20:28) 그분은

> **성역을 베푼다는 것은**
> 타인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이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어]" 성역을 베푸셨다.(사도행전 10:38)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라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성역이 있는 *것이다!*

성역을 베풀기 위해 거대한 봉사 프로젝트를 조직할 필요는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봉사는 우리 가족이나 교회 부름에서, 또는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 참가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특별히 지명받지 않은 채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1]

보통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서 일어난다.

하나씩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와서 그분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 있는 자국을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5; 강조체

추가)

그런 다음 그분은 병들고 다치고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 모두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셨다.(제3니파이 17:7, 9; 강조체 추가)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다.(제3니파이 17:21; 강조체 추가)

그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다. 경전에는 그곳에 약 2,5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나온다.(제3니파이 17:25 참조) 구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내어 개개인을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보이셨다.

> 성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예수께서 개개인에게 보이시는
> **사랑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확실히 여기에는 *아주* 심오하고 부드러운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씩 성역을 베푸시고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2] 성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개개인에게 보이시는 사랑이다.

보는 눈

구주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도우셨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다른 이에게 미소짓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들으며,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용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과 친구, 이웃과 모르는 이들에게 똑같이 봉사하셨고, 지인과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권유하셨습니다."[3]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며,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미셨다!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완전하시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을까?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한 명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내내 마음을 신앙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커지고,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봉사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4]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한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좀 우울해 보인다. 그 친구를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친구를 귀찮게 하거나 그 친구나 자신이 난처해질까 걱정도 된다. 게다가 그것이 영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인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때로는 성역을 베풀라는 속삭임이

사진: 보네시아 갓스웰/Unsplash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몰몬은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모로나이서 7:13)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식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오는 속삭임에 따라 행한다면,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5]

그리스도가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심, 미너바 케이 타이커트

성역은 모두가 하는 일이다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서 중요한 변화를 알려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새롭고 더욱 성스러운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6] 이것은 성역 동반자로 함께 봉사하는 기회도 포함하지만, 성역은 일요일이나 상호 향상 모임 중에만 하는 일은 아니다. 특정 부름과 함께 오는 책임도 아니다. 성역은 모두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행해야 하는 일이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 우리에게 오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 **행한다면,**
>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약속을 맺는다.(모사이야서 18:8~9)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전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또래를 살펴보고 그분처럼 [그들을] 보살피기를 바라십니다.”[7]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림짐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성역을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역은 축복을 가져온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8] 성역은 다른 이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손과 마음을 내밀면 우리에게도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고 더 깨끗해지며, 강해집니다.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 주셨다.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푼다면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다. ■

주

1. 엠 러셀 밸라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0쪽.
2.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한 사람씩”,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6~37쪽.
3.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풂”,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4쪽.
4. 엠 러셀 밸라드, “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01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920~121쪽, 번역일부 수정.
6. 러셀 엠 넬슨 회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쪽.
7.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녀 회장,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6쪽.
8.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70쪽.
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75쪽.

성탄절의 영을 느끼는 일곱 가지 방법

호화로운 축제 분위기도 재미있지만, 즐겁게 성역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열쇠이다.

샬럿 라카발
교회 잡지

삽화: 마이클 멀런

'성탄절 기분이 별로 나지 않는걸.'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그럴 수도 있다. 성탄절 노래를 아무리 크게 틀어 놔도, 성탄절 쿠키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도무지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나 올해에는 성탄절 기분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사를 계속 읽어 보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가르침을 전했다. "성탄절의 영은 우리의 마음이 형제애와 우정 안에서 따스한 빛을 발하게 하고, 봉사라는 선행을 베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1] 전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성탄절의 영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낌없는 손길을 내밀고 우리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2]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으로는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영을 느끼는 핵심 비결은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이다. (성역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풀다" 기사를 읽는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성탄절 기간에는 다른 이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는 훌륭한 방법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중 몇 가지를 실행에 옮겨 본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은 영의 따스함을 느끼고 구주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영이다!

1. 외로운 이들을 방문한다.

지인 중에 함께 성탄절을 보낼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연로한 분이나 최근에 여러분의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을 방문해 볼 수도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단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라도 그 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도움으로써 "'개개인'을 보살피셨다."[3]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 밖으로 나가 성탄절 캐럴을 부른다.

우리의 선지자가 성탄절 캐럴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스꽝스러운 산타 노래"를 목청껏 부르든, 경건하게 구주에 관한 찬송가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을 부르든 간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른 이들과 음악을 나누는 것이 "참된 성탄절의 영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는다.[4]

3. 휴대 전화를 보기 전에 먼저 주위를 둘러본다.
휴대 전화를 온종일 주머니에 넣어 둘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 곁에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성탄절의 영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오스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휴대 전화를 통해 가상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보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본 뒤, '오늘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래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남몰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용기를 줄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5]

4. 집안일을 더 돕는다.
집을 치우거나, 아이를 보겠다고 하거나, 다른 집안일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정말 성탄절의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올바른 태도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바닥을 닦거나 집안 정리를 할 때 자신이 돕고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고된 노동의 선물을 얼마나 반기겠는지 생각해 보라!

5. 성탄절 간식거리를 선물한다!
앞에서 여러분이 먹어 치운 성탄절 쿠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간식을 한 판 정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중 몇 개(혹은 그 이상)는 아마도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성탄절의 영을 느끼는 비결은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 주는 데 있다.

6. 성탄절 영상을 소개한다.

소셜 미디어에 성탄절 메시지를 공유한다. 성탄절 몰몬 메시지를 참고할 수도 있다. Mormon.org에 있는 교회 성탄절 동영상을 공유하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다. 영상을 친구에게 보낼 수도 있고, 자신의 계정에 올릴 수도 있다.

7. 몰래 봉사한다.

여러분은 남에게 들키지 않는 은밀한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누군가의 현관에 음식 또는 선물을 두고 오거나, 외투 주머니에 다정한 말을 적은 쪽지를 살짝 넣어 두거나, 눈이나 낙엽을 치울 수도 있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성구를 기억하자.(마태복음 6:4 참조)

성탄절에 베푸는 성역

반짝이는 성탄절 조명 장식과 축제 분위기의 화려한 볼거리는 연말연시를 더욱 경이롭고 즐겁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역을 베푸는 데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진정으로 찬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대로 해야 하고, 자비와 동정심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되게 합시다. 조금 더 친절하고, 더 용서하고, 덜 판단하고, 더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일에 더 관대해집시다."[6] ■

주

1. David O. Mckay, Gospel Ideals(1953), 551.
2. Bonnie L. Oscarson, "Christmas Is Christlike Love" (First Presidency Christmas Devotional, Dec. 7, 2014), broadcasts.lds.org.
3. David A. Bednar's Facebook page, video posted on Jan. 22, 2017, facebook.com/lds.david.a.bednar/videos.
4. Russell M. Nelson, in "Christmas Memories from Prophets and Apostles," *New Era*, Dec. 2015, 10.
5. 보니 엘 오스카슨,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6~27쪽.
6. Dieter F. Uchtdorf, "Scatter Your Crumbs" (First Presidency Christmas Devotional, Dec. 3, 2017), broadcasts.lds.org.

성탄절 선물로

영의 은사도 함께

데이비드 딕슨
교회 잡지

나는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정말 맛있게 만든다. 이 맛있는 메뉴와 다른 몇 안 되는 조리법으로 선교 사업 기간과 결혼 전까지 잘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는데, 아이들은 입맛이 모두 달랐다. 메뉴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

저녁 식사 당번이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저녁을 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하고 싶었지만, 꼭 문제가 생겼다. 재료를 빨리 찾을 수 없거나 일부 재료가 없거나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예정된 저녁 메뉴 대신 쉽고 빠른 것으로 바꿀 때가 더 많았다.

나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껏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영적인 은사를 구체적으로 간구했다.

삽화: 조시 델버

한 가지 은사, 다양한 쓰임

나는 특히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간구했다. 그렇다, 정리였다! 우리집에는 이미 양념 찬장이 있었다. 조리 도구를 보관하는 서랍도 있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요리보다 도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꾸준히 그 은사를 간구하면서, 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다. 벽걸이형 양념 선반이 있으면 양념을 정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방용 자석 막대(역시 벽걸이형)가 있으면 칼과 기타 금속 주방 도구들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보니 요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타임(향신료의 일종—옮긴이)이 필요한가? 마늘 소금? 마늘 *가루*는 어떤가? 뭐든지 말만 하시라!

그러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내 생활의 다른 영역도 더욱 잘 정리할 간단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내가 만든 3단 빨래 건조대는 비록 우리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겠지만, 한 번에 한 부분씩 떠오르는 영감을 따르며 제작한 그 방식을 본다면 니파이조차도 감탄했을 것이다.

정리하는 영적 은사를 통해 나와 가족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간구했기에 가능했다.

은사는 많으나 구하는 자는 적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여러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가르쳤다.(고린도전서 12:5~11 참조) 그런 뒤에 그는 그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가르쳤다.(고린도전서 12:31 참조)

사모한다는 말을 좋은 뜻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여기서 사모한다의 영어 원문은 covet으로, 탐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옮긴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있는 영적 은사를 보고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46:26~29 참조)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한다. 인내심은 영적인 은사이다. 낙천적인 성격도 그렇다. 용기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영적 은사이다.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알 로렌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저는 가끔 하늘에 있는 커다란 창고를 상상해 봅니다. 그 창고는 영적 은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구할 신앙이 있는 모든 성도는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은사를 구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창고는 항상 재고가 가득 쌓여 미어터질 듯합니다."[1]

로렌스 장로님은 자애의 은사를 간구하기로 결심했던 한 친구를 이야기하셨다. 장로님은 그 친구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몇 달 동안 특별히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왔어. … 그랬더니 서서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지. 그 전에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어.'"[2]

여러분을 위한 은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영적인 은사는 물질적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지다!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우리는 경전에서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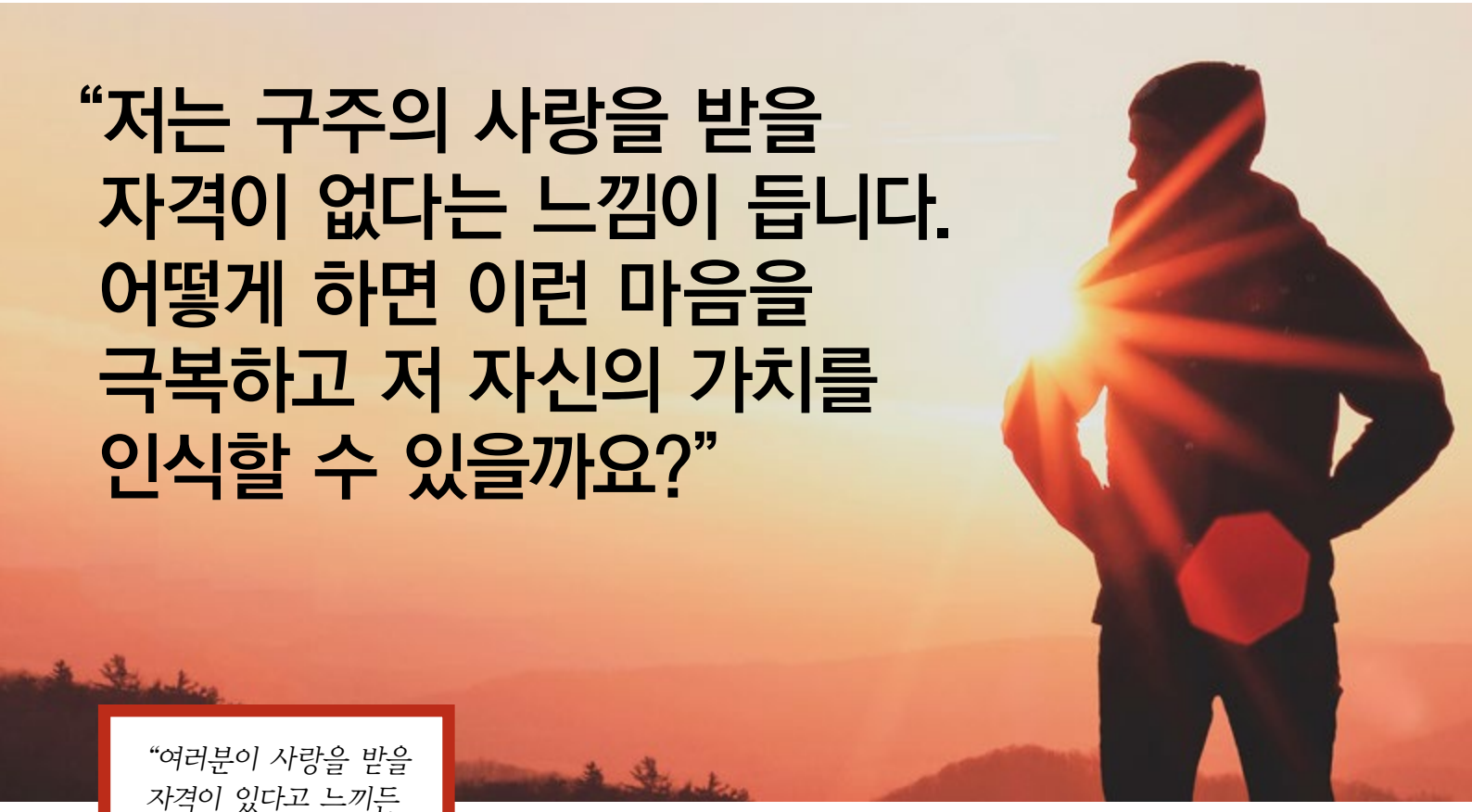
성탄절 아침에 받고 싶은 선물로 무엇을 바라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좋은 은사들"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그 선물은 이미 "포장되어"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간구해 보자. ■

주

1. Larry R. Lawrence, "Why Not Ask?" (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devotional, June 13, 2017), byui.edu/devotionalsandspeeches.
2. Larry R. Lawrence, "Why Not Ask?"

“저는 구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진심을 다해 전념하여 경전을 연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 강해지고 더 깊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4쪽, 번역 수정.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언제나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줄리아 엠, 16세, 미국 버지니아주

구주께 좀 더 다가가십시오

얼마 전에 선교사 준비반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야기되었는데, 그중에는 이웃에게 봉사하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기도로 도움 구하기, 경전 읽기, 선교사 되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티아고 지, 17세, 미국 애리조나주

사진: BRYAN-MINEAR-316499/UNSPLASH

계명을 지키십시오

저는 가끔 구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제가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함으로써 이런 느낌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감독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독님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크 디, 15세, 코트디부아르 아비드잔

회개가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이타적인 행동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구주의 사랑을 깨닫는 열쇠는 바로 회개입니다.

쿠스탄 자매, 23세, 필리핀 세부 선교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한 가지 방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 주게 되며,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저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자 제가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더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다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이미 더블유, 15세, 미국 미네소타주

제시된 의견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덕분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기만 한다면 죄책감도 씻겨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도 가끔 죄의 기억에서 오는 죄책감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죄책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생각을 집중하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치심은 우리의 생각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몰몬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들이 나옵니다.

- 암몬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구주와 그분의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고통 대신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앨마서 26:17~20 참조)[1]
- 앨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저지른]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앨마서 36:17~19) 기억을 잊은 건 아니지만, 더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2]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8쪽 참조.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안전한 귀환 지점",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1쪽 참조.

다음 질문

"선교 사업을 나갈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1월 15일 수요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기사 제출 혹은 피드백" 클릭)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입니다. [교리와 성약 59:2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평안을 끼치는 선물"(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2016년 12월 4일)

사진: GETTY IMAGES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해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1. 일주일 동안 **소셜 미디어 금식**을 실행해 보십시오.

2. 매주 한 번씩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여 주님께 드리십시오.**

3. **성약의 길** 위에 머무르십시오.

4.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5. 두드러지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삽화: GETTY IMAGES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6쪽, 8쪽.

칼의 성탄절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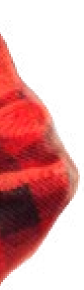
줄리앤 테니 도먼

실화에 근거함

"해야 할 일 있을 때 웃으며 하자. 해야 할 일보다 더 하자."(Children's Songbook, *167*)

칼은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추위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있고 싶다.' 칼은 생각했다. '그리고 얼른 가서 성탄절 선물도 열어 보고 싶어!'

칼은 그날 아침 신문 배달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 집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칼은 엄마가 성탄절마다 만드시는 계피롤빵을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맛있을지. 빵 위에 얹힌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 맛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아, 크림! 칼은 어깨가 축 처졌다. 우유 짜는 일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성탄절에도 빠트리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칼은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칼은 동생과 누가 먼저 신문을 돌리고 오는지 시합을 했었다. 동생의 자전거가 안 보이는 걸 보니 칼의 승리가 분명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선물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 일을 해야 했다. 칼은 집 안에 머물며 성탄절을 즐기고 싶었다.

'그냥 지금 그 일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칼은 생각했다. '그러면 추운데 다시 밖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칼은 서둘러 헛간으로 달려갔다.

양동이를 집어 우유를 짜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야 할 집안일들이 많이 보였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혼자서 그 일들을 다 해 버린다면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이 되겠지! 그럼 다 함께 집 안에서 성탄절 아침을 보낼 수 있어! 성탄절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칼은 서둘러 우유를 짰다. 또 헛간을 청소하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달걀을 꺼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지 생각하니 벙긋 웃음이 나왔다.

칼은 집에 돌아왔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몰래 부엌으로 갔다. 우유와 달걀을 냉장고에 넣자마자 엄마가 들어오셨다.

"다행이다. 집에 왔구나." 엄마가 안아 주시며 말씀하셨다. "다들 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었어."

엄마는 칼이 외투 벗는 것을 도와주셨다. 남매들은 칼을 발견하고는 "칼이 왔어요! 이제 선물을 열어요!" 하고 소리쳤다. 모두들 성탄절 트리 주위로 모여들어 아빠가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다렸다. 칼은 다 함께 선물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흐뭇했다.

"자!" 아빠가 말씀하셨다. "이제는 일하러 나가야 할 시간이야. 주스와 계피롤빵을 좀 먹고 나가자꾸나."

아빠는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여셨다. 아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냉장고 안을 빤히 들여다보셨다.

"아니, 이것 좀 봐!" 아빠가 말씀하셨다. "우유병도 가득 찼고, 달걀도 다 여기 있네!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아빠는 다시 거실로 오셨다. 칼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애썼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니, 칼?" 아빠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가 할 일을 이미 누군가 다 한 것 같구나."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칼은 외쳤다.

아빠는 칼을 안아 주셨다. "고마워, 아들. 정말 사려 깊은 행동이었어. 우리에겐 이번이 최고의 성탄절이 될 것 같아!"

칼은 활짝 웃었다. 칼은 이날이 *자신에게도* 생애 최고의 성탄절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삽화: 그레그 뉴볼드

케이티와 퀸시

에번 밸런타인 및 머리사 위디슨
실화에 근거함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잠언 17:17)

케이티는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춤추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케이티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일요일이에요! 친구 퀸시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케이티는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케이티는 퀸시가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아요.

퀸시는 케이티의 손을 잡고 함께 초등회로 가 주지요. 가끔 케이티가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에 몸을 움직이면, 퀸시가 꼭 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금세 차분해졌죠.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퀸시는 케이티가 교실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어요. 케이티는 퀸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케이티는 퀸시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퀸시의 오빠 코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케이티는 친구가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퀸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엄마는 사람들이 퀸시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오늘 밤 교회로 간다고 케이티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코리 오빠의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교회에 갈래?" 엄마가 물으셨어요.

케이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티는 퀸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케이티가 옷을 갖추어 입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다음,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케이티가 아는 교회 회원들도 있었어요. 감독님이 보였고, 초등회 선생님도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퀸시는 어디에 있어요?" 케이티가 물었지만, 엄마도 그건 알지 못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케이티는 보통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밤에는 퀸시를 찾아야만 했어요. 케이티는 용기가 났어요. 케이티는 감독님에게 씩씩하게 걸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퀸시가 슬플 거예요. 퀸시를 찾아야 해요!"

감독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케이티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퀸시를 찾으러 가자꾸나."

케이티는 감독님과 엄마와 함께 교회 건물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퀸시를 찾았어요! 퀸시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퀸시는 정말, 정말 슬퍼 보였어요.

케이티는 다가가서 두 팔로 친구를 감싸 안았어요. 퀸시가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할까 생각했어요.

"괜찮아, 퀸시. 예수님이 코리 오빠를 돌봐 주실 거야." 케이티가 말했어요. 케이티는 조심스럽게 퀸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퀸시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케이티는 퀸시를 더 꼭 껴안아 주었어요.

"괜찮아." 케이티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코리 오빠를 돌봐 주실 거야."

퀸시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케이티는 그런 친구를 계속 껴안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퀸시의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아직도 훌쩍이기는 했지만, 이젠 마음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퀸시가 케이티를 올려다보았어요.

"고마워, 케이티." 퀸시가 말했어요.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돌봐 주실 거야."

케이티는 친구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케이티는 퀸시를 정말 사랑했어요!"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주에 산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장애로 몸을 움직이는 걸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뇌를 쓰는 걸 어려워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로 뇌와 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장애가 있든 모든 어린이는 중요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빤히 쳐다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흉을 본다.
모르는 척한다.
놀린다.
욕설을 한다.

해야 할 일!

인사를 나누고 친절하게 대한다.
예의바르게 질문한다.
사람들이 짓궂게 굴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준다.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

경건은 사랑이지요

루애포 더블유, 10세, 호주 빅토리아

금요일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교생과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모이는 학교 전체 모임에서 제 자작시를 낭송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어요.

단상에 앉아 제 시를 낭송할 차례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무언가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니 긴장이 무진장 되었죠.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함께 몰몬경을 읽는지가 생각났어요. 가족 경전 읽기를 생각하다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생각났어요. 곧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박동 소리도 잠잠해졌고, 경건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이 노래책 12쪽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경건은 조용히 앉아서 맘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주 축복을 생각할 때 오는 느낌
경건은 사랑이지요
경건하게 말하고 행해야 하네
그 좁은 길 따라야죠
늘 경건할 때에 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곁에 느껴요

모임에서 긴장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껴요.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

삽화 : 로라 자린

진흙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 사랑 나누세 값 없이 봉사하여"
(어린이 노래책, *42*쪽)

우리 가족은 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건너편에는 맹그로브 숲이 있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나무 사이로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땅이 무척 질척거립니다.

사람들은 그 진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 거대한 통나무들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들고 맙니다. 집에 물이 차면, 사람들은 밤에 잠잘 곳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저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때로는 열다섯 명 정도의 이웃들이 우리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거실로 초대해서 담요를 나눠 주셨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튿날까지 우리집에서 그렇게 묵었습니다.

그런 적이 적어도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집은 별로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재우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 사람들은 달리 갈 곳이 없잖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부모님의 봉사는 그저 무언가를 돕고 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성탄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

삽화: 에덴 코프니

삽화: 오브리 블레이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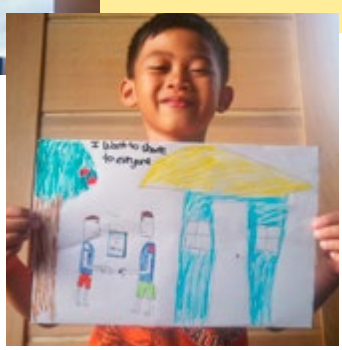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6쪽.*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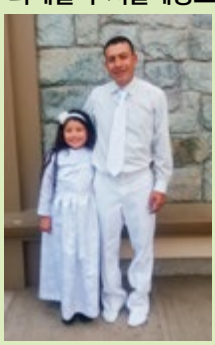
침례의 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아서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계속 깨끗하게 지내고 계명에 순종한다면 성신은 저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가 참되고 몰몬경이 참됨을 알아요.
후안 오, 8세, 콜롬비아 칼리



이레안툼 디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사랑해요" 및 베를란 티의 "저는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필리핀 루손섬

"주님의 선교사들", 에밀리오 에이, 9세, 아르헨티나 포르모사

모든 생일이 특별하긴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침례식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침례를 받고 나니 정말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시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대나 엠, 9세,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세상을 밝히는 형제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허버트와 제이든이에요.

1

제이든: 성탄절 노래

학교에서 우리 반이 성탄절 연극을 했는데, 제가 그 행사 전체의 반주를 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오 거룩한 밤"을 가르쳐 줬지요.

2

제이든: 이웃을 가르침

저는 이웃들과 놀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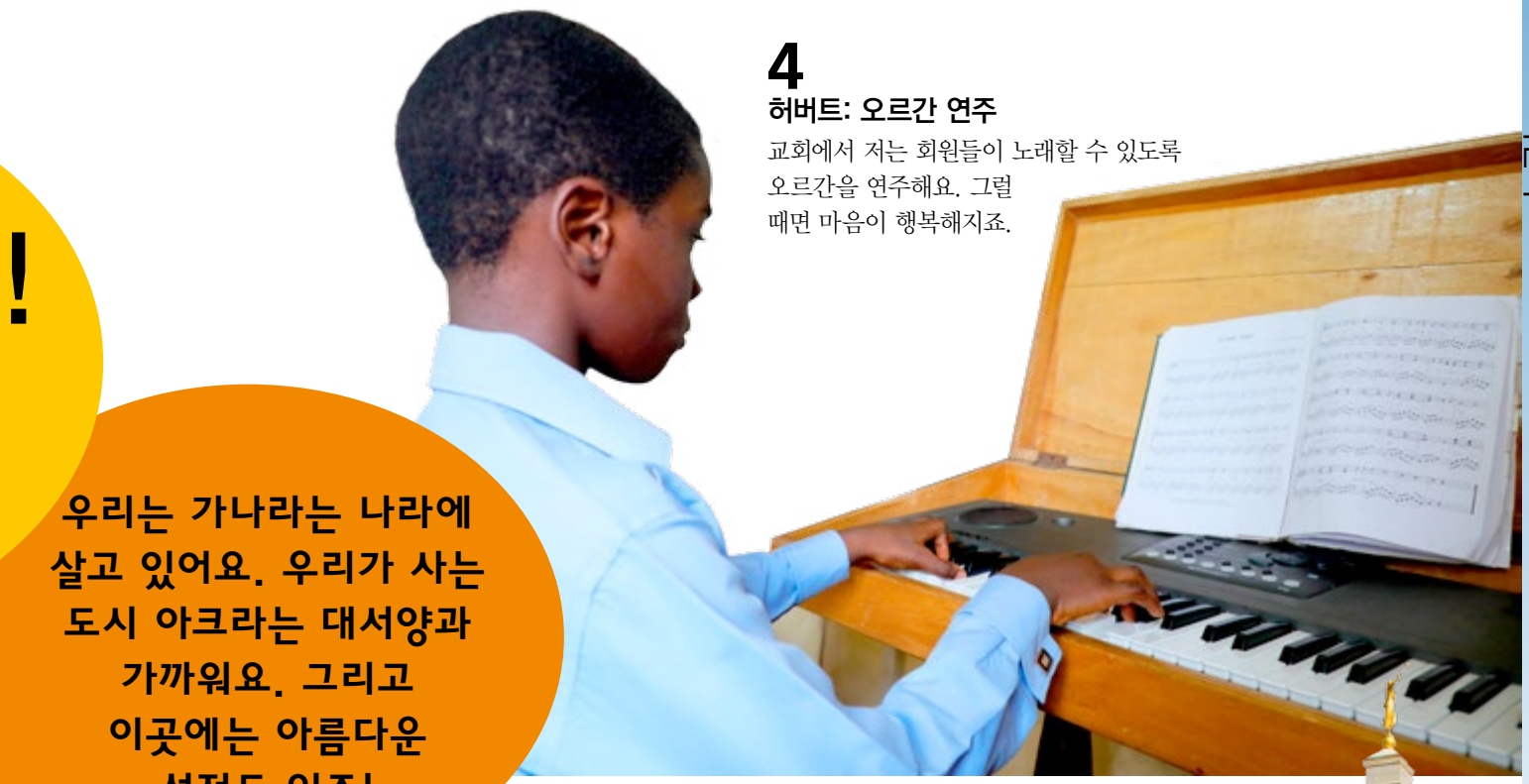
3

허버트: 배고픈 친구를 도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친구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저는 제 간식을 나눠 주고 그 친구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

우리는 가나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 아크라는 대서양과 가까워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름다운 성전도 있죠!



4

허버트: 오르간 연주

교회에서 저는 회원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오르간을 연주해요. 그럴 때면 마음이 행복해지죠.

5

세상을 비춥시다

경전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춥시다!

리아호나에 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수천 개의 별과 여러분이 베푼 사랑스러운 봉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하늘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빛을 비췄습니다!

요나와 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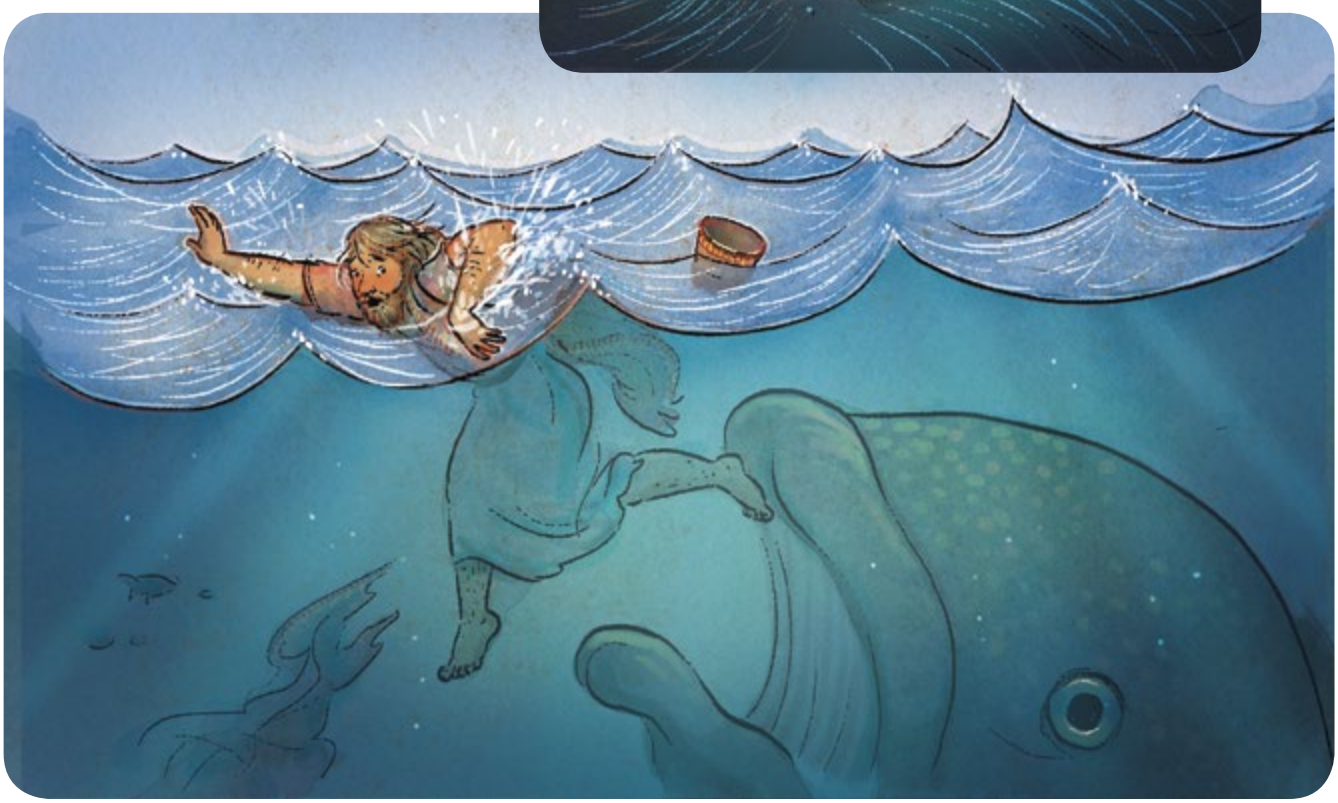
킴 웹 리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선교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다른 도시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거대한 폭풍이 일었어요. 선원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두려웠어요!

삽화: 에이프릴 스토트

요나는 자신이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구하러 고래를 보내셨어요. 요나는 고래의 배 속에 사흘 동안 있었어요. 요나는 기도했어요.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고래에게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 내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그는 니느웨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회개하고 다시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

요나 1~4장에서 발췌

"내가 …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삽화: 에이프릴 스토트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해함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 시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며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희생을 기뻐합니다. 만인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칭송하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분이 만인의 주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불멸과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 시대에 알려 준 또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회복을 가능하게 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세워[졌습니다]. …

1820년 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이 지상에 드리웠던 암흑의 휘장을 거두셨습니다. … 그분들은 하늘의 본향으로부터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숲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린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 충만하고 영원한 당신들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조셉을 당신들의 손에 들린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거룩한 사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의 이름을 묻고, 주께서 후기의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삽화: GETTY IMAGES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까? … 인간의 구원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

조금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조셉 스미스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는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인봉할 권능을 부여받은 적법한 대리자이며, 그의 시대 이후로 나아올 모든 사람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셉 스미스—회복을 가능케 한 위대한 선지자",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88~91쪽에서 발췌함. 맞춤법은 현재 표준어에 맞게 고침.

청년 성인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이 있는가?

여러분을 안내할 완벽한 길잡이를 신뢰할 수 있다.

42

"하나가 됨"을 기념함

단합된 마음으로 미래를 고대하다

46, 51

청소년

개인적인 성역을 완수함

52

성탄절

기쁨을 나누는 일곱 가지 방법

56

이것을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저장하라

60

KOREAN

4 02147 97320 7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